

수산사회교육의 현상학과 발전 방향

김삼곤[†] · 김태운^{*}

(부경대학교 · *교육인적자원부)

The Present Situation and Desired Future Directions of Fisheries Social Education

Sam-Kon KIM[†] · Tae-Un KIM^{}*

*Pukyong National University · *Ministry of Education & H.R.D*

(Received September 15, 2003 / Accepted November 25, 2003)

Abstract

In spite of the importance of a fishing industry, neither any terminology defined in details nor academic systems to educate the workers in the fishery were established in the fisheries social education. The fisheries social education was considered to be the practical area around the actual fields. Therefore, on-site education was very important. Accordingly, this study collected and analyzed theoretical basis of a social education and data on the rural adult education and examined the actual status of the fishing industry in Korea and fisheries extension services enterprise and fisheries developmental enterprise corresponding to the actual fisheries social education conducted in Korea. On the basis of these frames, this study summarized the direction for the progress of fisheries social education that has not been studied until now for the purpose of suggesting the future directions of the fisheries social education as follows;

The recognition on the importance of fisheries social education and fundamental researches in the fisheries social education should be extended. The practical development of fisheries social education should be realized. Fisheries extension services enterprise should be evolved by fishermen. The abilities of instructors in the fisheries social education should be improved. The academic factors in the fisheries social education should be emphasized. Inter-disciplinary and multi-disciplinary approaches should be adopted. Various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for the progress of the fisheries social education. The exclusive department in charge of the fisheries social education should be established. The information system for the fisheries social education should be secured. The industry, academic organizations and the organs should make cooperation. The fisheries social education should be provided by general social education institutions for the progress. The fisheries development should be deployed on the basis of environmental preservation. It is necessary to deploy the new fishing village movement like the Saemaul movement to the fisheries.

[†] Corresponding author : 051-620-6192, kimsk@pknu.ac.kr

The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s for the fisheries social education should be expanded. It is essential to cultivate the future fishermen for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Key words : Fisheries social education, Fisheries extension services enterprise, New fishing village

I. 서론

우리나라의 수산업은 산업구조 개편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산업으로 변화되어 왔다. 이와 같은 결과로 인해 어촌지역의 개발, 기초 인적 자원 개발 및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관련하여 심각성이 심화되고 있다.

수산업은 어민이 어업을 영위할 때 유리한 조건과 환경이 만들어 지도록 여러 가지 방안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어민 소득 증대와 함께 다양한 복지적 투자를 늘려야 하며, 현재의 어업종사자가 더 이상 어촌을 등지지 않고 어업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수산업은 단기적이고 경제적인 논리로만 판단하려 하지 말고, 장기적면에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테면 청소년과 성인남녀를 주 대상으로 하는 수산사회교육을 통해 그 대안과 해결책을 찾아야 할 시기가 되었다. 수산사회교육이 활성화되고 체계적으로 수준 높은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수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수산업에 대한 어민의 새로운 인식과 태도변화가 가능할 것이다. 그러므로 어촌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우리나라 수산사회교육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와 연계하여 어촌지도와 어촌사회 개발을 위한 기초적 연구가 시급히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수산사회교육은 평생교육의 실천 영역이기 때문에 학교수산교육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군다나 인쇄물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 많은 정보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수산사회교육의 학문적,

실천적 체계 정립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수산업이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산업시스템으로써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과 수산사회교육을 연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이에 따른 실천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지속적인 수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수산사회교육학의 학문적 체계뿐만 아니라 수산관련 복합적인 지식과 기술의 접목을 위한 연구가 수반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산사회교육에 대한 관련연구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반면 농업관련 사회교육은 학문적 체계와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등이 연구되어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해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아직 전통산업의 형태가 일부 영위되고 있는 수산업은 현장의 실천적 영역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하므로 먼저 수산업 실태, 수산사회교육 실체에 해당하는 어촌지도사업과 어촌개발사업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들의 활성화 방안을 파악함으로써 수산사회교육의 당위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근본적인 요인을 찾으려 하였으며, 수산사회교육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II. 연구의 방법과 문제 제기

1. 연구 방법

우리나라 수산업은 국내외 발생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를 타개하여 국제 경쟁력을 갖추어 동시에 어촌을 미래형 복합 생활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학교수산교육 이상으로 수산사회교육의 활성화가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수산사회교육의 발전 방향에 대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먼저 우리

나라의 수산업의 현황과 어촌 문제 및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수산사회교육의 실제에 대해 관련 문헌 및 자료를 조사하였다. 조사 대상은 우리나라 농업사회교육의 현황, 수산사회교육 관련 기관인 국립수산물학원 연수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수협중앙회 연수원의 교육현황과 함께 수산사회교육의 구체적 실천 영역인 어촌지도사업, 어촌개발사업 등이었다. 자료를 통해 수산사회교육의 의미와 성격, 수산사회교육의 당위성과 중요성, 수산사회교육의 발전 방향과 연계하여 총체적인 수산사회교육의 흐름도를 제시하였다.

2. 문제점 제기

가. 수산업 환경의 변화

우리나라의 경제는 1960년대 이래 정부의 강력한 성장 위주의 정책으로 일관됨으로써 어업 부문은 극도로 피폐화되고 도시와 농어촌의 격차는 날이 확대되어 왔다. 국내총생산중 농림어업의 비중은 1963년 43.4%에서 1981년 15.8%로 급격히 떨어졌고, 1996년에는 6.3%로 더욱 낮아졌으며, 2001년에는 4.5%로서 이중 수산업은 0.3%로 추정 발표하고 있다. 수산업 부문은 1970년대 근대적인 과학기술과 새로운 생산수단의 보급으로 급성장을 이루어 온 것이 사실이지만,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저하되는 등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크게 낮아져 경제부문간 불균형 발전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뿐만 아니라 어가의 실질 소득도 대체로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65~80% 정도의 낮은 수준에 머물러 왔으며, 어업수지의 악화로 인해 어가 부채는 급속히 증가되어 왔다. 특히 최근 어업의 최대 위기는 어업 생산을 위한 어업노동력의 고갈에 있다. 산업화 과정에서 어업 부문의 인구와 노동력이 빠른 속도로 도시 부문으로 이동하였는데, 이러한 離魚는 '저수산물가격·저임금구조'로 요약해서 설명할 수 있다. 도시 부문과 어업 부문간 소득격차 및 어가 경제의 악화는 인구의 급격한 도시집중과 離魚를 가속화시켰

고, 특히 젊은 층들이 어촌을 떠남으로써 어촌 노동력의 부족 및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었다.

또한 급속한 산업화는 환경오염이나 개발에 따른 인위적인 생태계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어족자원의 심각한 고갈을 가져와 어업생산량을 저하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수산업은 국내외적 환경이 계속 밝지 못한 시점임으로 수산사회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그 타개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나. 어촌사회의 문제점

수산업의 실태와 변화과정에서 가장 심각한 어촌문제는 어업인구의 감소로 인한 어업노동력의 부족 현상이며, 다음으로 어업생산량 및 어업생산액의 저성장 문제, 그리고 단위생산성의 저하 문제를 들 수 있다. 어업생산액은 증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총생산 대비 어업생산액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함으로써 어업이 우리 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계속 위축되고 있다. 그리고 연근해어업에 있어서 어선세력은 매년 증대되고 있는 반면 총어획량은 정체 상태에 있음으로써 어선 톤당 어업생산량 및 마력당 어업생산량이 1974년 이후 급격히 감소되어 왔다. 즉, 어선세력당 단위생산성이 저하되어 왔는데, 이는 매립·간척으로 인한 연근해어장의 축소, 공장폐수와 생활하수의 유입으로 인한 어장환경의 악화, 그리고 수산자원의 남획 등에 따른 수산자원의 감소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어가경제의 악화 문제를 들 수 있다. 어가소득의 지속적인 증대에도 불구하고 도시근로자가구소득에 대비한 어가소득의 비율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떨어져 2000년도에는 65.8% 수준에 머물르고 있다. 즉, 도시와 어촌간의 소득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어가부채의 급증도 어촌경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어가부채는 2000년 현재 평균 1,364만원으로써 1980년의 56만원에 비해 22배나 증가하였다. 1980년만 해도 어가소득의 21.6%에

불과하던 부채의 비중이 2000년에는 72.3%에 이르게 되었다. 그 외 수산계·해양계 학교의 입학생의 감소와 학력저하 현상을 들 수 있다.

요컨대, 어민의 생산증대와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을 위시하여 이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개발하고 이에 대해 어민을 대상으로 하여 종합적인 수산사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수산사회교육 관련기관은 국립수산과학원 연수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수협중앙회 연수원 등에 불과하며, 소수의 대학이 수산사회교육을 개설하고 있다. 이들 수산 관련 학교교육 기관, 사회교육 기관이 연계성을 갖고 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수산사회교육의 역할과 어촌지도사업, 어촌개발사업이 체계적인 연계성을 갖고 있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

III. 수산사회교육의 이해와 실제

1. 수산사회교육의 이해

가. 수산사회교육의 의미와 성격

수산사회교육은 아직 생소한 용어이나 종래에는 어촌지도의 의미로 받아들여 왔으며, 수산관련 수산사회교육 기관의 교육 활동으로서 어민을 대상으로 한 어촌 지도사업, 어촌종합 개발사업 등에 집중되어 있다. 수산사회교육에 대한 기초적 이해와 관련 용어적 개념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수산업이란 인류생활에 필요한 수산 동식물의 어획, 채취, 양식, 처리·가공에 관한 일을 영리 목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이며, 수산학이란 수산·해양과 관련된 전문 영역을 포함한 학문 분야를 체계화한 종합적인 응용 과학이다. 그리고 수산·해양교육이란 수산업과 해운업에 대한 문명사적 관련 지식과 기술을 창달하는 능력을 갖도록 하면서,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수산업과 해운업의 지식과 기술을 논리적이고 사실에 맞추어 가치적 창조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학문적으로 체계화한 것이다.

또한 어민이 주체가 되어 어촌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모든 과정과 활동을 어촌지역 사회개발이라 하며, 어촌에 정착하여 어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어촌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어업인후계자 교육이라 할 수 있다. 그중 어업인 교육이란 어촌에 거주하는 어민을 대상으로 신기술 습득과 어민의 의식을 계도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또한 어촌순회 기술교육이란 어민을 대상으로 성어기 또는, 순기별로 필요한 수산기술을 보급하여 과학적인 영어 관리를 함으로써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교육이다.

어민을 대상으로 한 어촌 지도사업이란 어민의 생활개선·어업기술의 향상·조업안전과 어업종사자의 지위향상에 필요한, 즉 어업과 어민생활의 개선에 관한 지식 및 기술의 지도와 보급, 어촌부업에 관한 기술의 보급, 어촌계의 육성, 조업안전에 관한 기술의 지도와 보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수산교육 용어와 관련하여 수산사회교육은 수산교육의 통합적 평생교육 체제로서 학교교육 외의 사회교육 과정이며, 주로 청소년 및 성인들을 대상으로 행하여지는 조직적인 교육활동이라 할 수 있다. 수산사회교육의 기초적 이론이 정립되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교육의 발전과 수산교육의 발전을 토대로 하여 수산사회교육의 초기 형태의 주류인 어촌지도에 대한 발전, 그리고 발전적인 산업사회에서 소외집단으로 취급되는 어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 전체의 상호 관계를 함축시켰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어촌은 도시에 비해 여러 부문에서 소외되어 왔으며, 농업과 비교하여 여러 면에서 서로 공통점이 많지만 농촌사회교육은 1962년부터 시작되어 발전 단계를 거쳐오고 있는 반면, 수산사회교육 부문은 아직까지 학문적, 실천적으로 체계적 연구는 물론이고 용어마저 생소한 실정이다. 수산사회교육의 기초적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수산업이 국가적 기간산업의 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게 될 것으로 전망된

다.

지난 수년 사이에 수산업은 직업에 대한 잘못된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관련 직업을 기피함에 따라 어촌인력 감소가 급속하게 진행되어 왔으며, 다른 산업에 비해 인식도가 낮기 때문에 어민의 소외집단화가 가속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촌어민과 도시어민을 대상으로 한 신기술교육의 연계와 정착화를 위해 체계적인 교육적 접근이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넓은 의미에서 사회교육은 소외집단에게 평생학습의 기회와 삶에 대한 의지를 새로운 방향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산사회교육을 위한 학문적, 실천적 연구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수산사회교육은 정부산하 기관과 민간단체에서 어촌지도, 즉 어민을 상대로 하여 어촌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수산사회교육을 발전시키는 기초적 단계는 수산대학 관련 학과에서 학문적 연구를 수행하면서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체계화하는 방안을 들 수 있는데 최근수산 업이 복합산업으로 발전함에 따라 당면 과제를 단편적으로 풀기에는 어려운 현황으로 변모하였다. 그러므로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관련 정부와 수산계 대학은 수산사회교육을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수산·해운사회교육을 담당해 나갈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을 체계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체제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나. 수산사회교육의 당위성 및 중요성 인식

수산사회교육은 평생교육 이념을 구현하는 차원이라 할 수 있으며, 과거 학교 중심의 교육에서 학교 밖으로 교육의 영역을 확산시킴으로써 그 의의와 당위성을 찾을 수 있다. 그간의 학교교육 체도를 비판하기에 앞서 학교교육의 보편화와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투자에 밀려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어 왔던 학교 이외의 교육기능과 다양화 사회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지식과 기능을 보완하고 강화하자는 의미로 인식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에

서 보면 수산사회교육은 우선적으로 어민을 대상으로 하여 강조되어야 하는 문제점과 중요성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수산사회교육의 중요한 분야인 어촌지도 사업은 관주도의 형태뿐만 아니라 민간주도 형태의 영역으로까지 확대시킬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수산사회교육은 관련된 분야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사회교육기관과 연계하여 발전적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 나감으로서 수산사회교육의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 수산사회교육의 실제

우리나라의 수산사회교육 기관은 해양수산부 주관의 국립수산과학원 연수부, 해양수산연수원과 단체 주관의 수협중앙회연수원이 있다. 해양수산부 관리 하에 실시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은 어민교육, 선원교육, 공무원교육 등이 있다. 어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어업인후계자 육성교육, 어선안전조업 지도대책교육, 소득증대를 위한 기술교육이 실시된다. 어업인후계자 육성교육은 어촌에 정착하여 어업에 종사할 의욕과 사업추진 능력이 있는 어촌 청장년에게 사업기반 조성자금을 지원하고 교육 및 기술지도를 통하여 자립기반을 확보토록 함으로써 어업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외에 어업인후계자 경영교육, 산업기능요원, 어업인후계자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어선안전조업 지도대책교육은 연근해 어선의 안전조업 지도교육으로 각종 해상사고를 예방하여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교육의 종류는 어선원안전조업교육, 안전관리지도교육, 어선안전점검요원교육 등이 있다.

어민의 기술교육은 소득증대를 위하여 어촌지도소에서 어촌순회기술교육이 품종별 전문교육반이 편성되어 주요어업시기별로 집중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중에서 어촌지도자 양성을 위한 어업인후계자교육은 수산업의 후계세대 육성을 위하여 수

수산사회교육의 현상향과 발전 방향

산계학교(자영수산과 중심)에 선발된 학생에게 장학금 등을 지원하여 학업의욕을 고취시키고 있으며, 어업인 후계자로 선발된 어촌의 청소년들에게는 자금지원 및 판매알선, 경영지도 등을 통하여 성공적인 어촌정착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국립수산과학원 연수부에서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어민들의 기술교육과 어선안전조업교육 등은 시·군, 수협, 어선협회 등 유관단체 등과 합동교육을 관리하며, 교육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유관기관과 교육계획을 협의하고 있다. 여성어업인 후계인력 육성·지원과 여성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여성특별위원회와 정책협의 하에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실행하고 있다. 그러나 타 부서간의 평생교육 관련 네트워킹은 전무한 실정임으로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 매체를 사용한 네트워킹 체제 설립이 요구되고 있다.

더군다나 해양수산부에는 평생교육 담당자나 평생교육관련 인적자원 전담부서가 없기 때문에 선원을 위한 교육과 평생교육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수·해운계 학교, 수산관련 특수고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수산사회교육은 여러 부서 관리업무로 되어 있다.

다만 어민관련 교육은 수산정책국의 수산기술인력과에서 맡고 있으며 12개의 지방해양수산청과 산하의 17개의 어촌지도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수산사회교육 기관의 내용을 보면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는 해양수산인력(해기사)의 각종 교육 및 훈련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립수산과학원 연수부에서는 해양수산부 공무원과 일반어민을 대상으로 어업인후계자육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의 유관단체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는 해양산업관련 종사자의 연수훈련, 또한 한국해양소년단연맹에서는 해양정신에 입각한 청소년 건전육성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 주요 수산사회교육 관련기관(정부 혹은 민간)의 교육인력 현황은 <표 1>과 같다.

우리나라의 수산관련 평생교육에 해당되는 배경을 보면, 1981년 「농어민 후계자 육성기금법」 제정과 1990년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법률 제 4228호) 제3조 및 4조에 의거하여 어업인 후계자를 육성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선박직원법」에 의해 우리나라에서 선원(해기사: 항해사, 기관사, 통신사, 운항사)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정규 교육기관인 해운계 4개교, 수산계 12개교에서 선원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비정규 교육기관으로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선원직 양성과정을 개설하여 수시로 해기사를 배출하고 있다. 선원의 직무, 복무, 노동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및 교육훈련은 「선원법」에 근거를 두고 실시되고 있으며 한국해양소년단연맹의 지원·육성은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실시되고 있다.

<표 1> 수산사회교육기관의 교육인력 현황 (2002년 3월)

수산사회교육기관명	교육기관수	교육인력(명)			비고
		교수	행정·일반직	계	
수협중앙회 연수원	1	9	9	18	· www.suhyup.co.kr · 충남 천안시 병천면 도원리 산47-16
국립수산과학원 연수부	1		16	16	· 일반직, 행정직이 교수겸임 www.nfrda.re.kr · 부산시 기장군 시랑리 408-1
한국해양수산연수원	1	52	68	120	· www.webkimft.or.kr · 부산시 남구 용당동 123
계	3	61	93	157	

우리나라 대학의 사회교육은 평생교육원, 최고 경영자과정 등과 같은 형태로 실시하고 있다. 대상은 성별, 연령 구분 없이 다양하며, 각 대학의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의 수산사회교육은 프로그램의 내용이 매우 단조롭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의 어촌·어업을 담당해 나갈 어업인후계자를 체계적으로 교육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대학의 수산사회교육 기관은 강릉대학교의 농수산인교육원 과정, 경상대의 최고수산경영자 과정 및 부경대학교의 수산공개강좌, 여름 수산학교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 어촌지도사업은 수산정책의 특수 사례라 할 수 있으며, 근대적인 수산기술을 도입하여 어업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어민소득을 증대함과 동시에 어민의 의식을 발전시켜 어업환경에 대응하고 스스로 문제해결 능력을 기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리고 어촌지도사업의 의의는 산업의 고도화와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사회·경제·문화적으로 낙후되어 가는 사회적 소외지역인 어촌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생활인으로서 문화적으로 풍요로운 사회인 의식을 갖는데 있다. 어촌지도사업은 행정부서 주관으로 실시되는 국립수산과학원, 도·시·군을 중심으로 한 어촌지도, 수협중앙회 주관 어촌지도로 구분하여 정리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어촌지도사업이 수산정책에 반영된 시기는 1966년 8월 수산진흥법(법률 1814호)이 공포된 후부터 수산지도 업무를 어업지도, 기술지도, 어촌지도로 정비하였다. 그리고 어촌지도사업은 1976년 6월부터 수산진흥원(수산과학원)으로 통합되면서 체제를 정비함으로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었다. 이후 80년대에 와서 천해양식 기술개발의 촉진과 함께 생산신장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생산증대는 물론, 어촌민들의 어촌 정착 의지를 강화하고 양식업의 사업화와 어촌지역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하였다. 어촌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어업기술 지도와 보급을 직접 구현하는 일선 지도기관인 어촌지도소가 처음으로 설치된 것은 1981년에 8개소이며, 1984년

6개소, 1986년 6개소 증설되어, 현재는 29개소가 있다. 또한 어촌지도소는 1996년 8월 해양수산부의 신설에 따라 수산청에서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그 이후 1997년 5월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에 따라 어촌지도 업무를 수산진흥원에서 본부 어촌개발국 및 지방해양수산청으로 이관되었고,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에 따라 명칭이 어촌지도과는 수산관리과로, 어촌지도소는 수산기술관리소로 변경되었다. 어촌지도는 수산진흥원 지도과 지원(7개)의 지도공무원으로서 생산 기술지도를 중심으로 되어 있으며, 수협중앙회 도지부 회원조합의 조합원(어민)으로서 되어 있다. 당시 수산진흥원(현 국립수산과학원 연구부)과 행정기관 주관으로 실시된 어촌지도사업은 다음과 같다.¹⁾

우리나라의 농촌 지역사회개발사업은 1970년대 성공적으로 이끈 새마을사업을 들 수 있는데 어촌개발사업은 농어촌정비법 제4조(농어촌정비종합계획 등)에 근거에 따라 어촌의 어민을 포함한 주민들의 어가소득을 도시근로자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경제성장과 생산증대를 위한 사업을 위시하여, 이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개발하여 종합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어촌지역주민들의 생산과 생활의 동기를 함께 불러넣는 데 목표를 두었다. 어촌개발사업은 도시와 어촌의 통합과 그의 역동적 관계 위에서 어촌의 경제계획과 사회계획을 연계시키고, 다시 여기에 정주하여 생활할 수 있는 집락의 배치와 생활환경 시설을 동시에 고려하는 광역적 종합개발 계획을 의미하고 있다.

어촌개발 사업은 1988년 시작하여 1994년부터 확대하였는데, 어촌개발의 당위성은 어촌 그 자체

1) 현행 어촌지도사업은 국립수산과학원 주관으로 실시되는 것 외에도 수협계통 조직을 통한 어촌지도사업, 도·시·군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기관의 어촌지도사업 등이 있다. 그러나 수협계통조직은 실시내용과 실적이 극히 미비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국립수산과학원과 도·시·군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업만 조사하기로 한다.

의 존재가치와 역할에 있다. 우리 사회에는 여러 형태의 다양한 지역사회가 발달해 있고, 이들 지역 사회는 각각 고유의 기능을 발휘하면서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를 다양성 있는 사회로 구성하여 사회의 안정성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인구 증가에 따른 식량자원 확보 문제가 전세계적 당면 과제인데, 농업생산에만 의존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하는 한 방법으로서 수산업에 의한 식량확보가 매우 중요한 명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수산업의 근간이 되는 어촌의 가치는 시장가치 기능에만 한정되지 않고, 다른 산업과 사회적 다양성을 규정하고, 해양레저 기능과 해양문화의 보존 및 그의 창출 기능을 위시한 사회적 가치와 200해리 시대의 해양 영토 확보 기능, 연안역의 개발과 국토의 균형적 발전 기능 등 여러 측면의 비시장적 기능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IV. 우리나라 수산사회교육의 발전 방향

1. 평생교육 측면에서 수산사회교육의 배경

어민이 어촌에 거주하면서 보다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청소년과 성인남녀를 주 대상으로 하여 수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수산업에 대한 어민의 새로운 인식과 태도변화, 정신력 강화를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수산사회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어촌의 현실을 극복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수산사회교육의 실재를 정확히 파악하고 어촌지도와 어촌사회개발 등 학문적, 실천적 접근을 통해 수산사회교육에 대한 연구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수산사회교육의 용어조차 정립되지 못한 실정이다.

수산사회교육은 평생교육을 근거로 하고 있으므로 먼저 사회교육에 대한 배경을 살펴보면, 1980년 10월 공포된 헌법에는 평생교육의 조항이 들어가게 되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교육법(1982)

과 그 시행령(1983)이 공포되었으며, 사회교육법 시행규정과 업무처리 지침(1985)이 공포되었다. 그 후 1995년 교육개혁위원회의 교육개혁방안에서 국민 개개인이 자아실현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교육복지국가를 건설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평생교육 이념을 구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2002년 평생교육 종합진행 계획이 발표되면서, 교육기본법에 근거한 평생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바뀌었다.

타 산업 중에서 생산활동 면에서 유사성이 있는 농촌사회교육은 1962년부터 30여 년 동안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바 있는 농촌의 청소년, 농민, 농촌부녀자를 위한 사회교육 활동으로서 넓게는 농촌지도사업, 지역사회개발사업, 커뮤니케이션 활동까지도 포함하여 많은 발전을 해 왔다. 그리고 농촌사회교육은 농촌지도사업이 실시된 이후 농촌사회 개발과 더불어 '농촌사회교육'을 하나의 학문적인 면에서 농촌사회교육학으로 정립시켜, 농촌이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줄 수 있는 실용적이고 실천적인 성격을 지닌 학문으로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산사회교육 기관은 해양수산부 주관의 국립수산과학원 연수부, 해양수산연수원과 단체 주관의 수협중앙회 연수원이 있다. 어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수산사회교육은 어촌지도사업과 어촌개발사업이 있는데 어촌지도사업은 산업의 고도화와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사회·경제·문화적으로 낙후화되어가는 사회적 소외지역인 어촌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생활인으로서 문화적으로 풍요로운 사회인 의식을 갖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어촌지도 체계는 일제시대 해안과 항구에 어업전습소를 설치하고 도와 시·군에 수산기술원을 두었으며, 삼천포(현 사천시)와 통영에 계절제 어업전습소를 설치하여 어촌지도업무를 처음으로 수행하였으며, 해방 이후 변화를 겪으면서 어민과 어촌지도에 역할을 수행해 왔다. 우리나라 어촌지도사업이 본격화된 것은 70년대 후반부터이며, 수산분야에서 어촌지도소가 실제로 설치된 것은 1981

년부터이다. 1996년 8월 해양수산부 신설에 따라 수산청에서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그 이후 1997년 5월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에 따라 어촌지도 업무를 수산진흥원에서 본부 어촌개발국 및 지방해양수산청으로 이관되었고,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에 따라 명칭이 어촌지도과는 수산관리과로, 어촌지도소는 수산기술관리소로 변경되었다. 종류는 어업경영지도, 어촌후계자 육성사업지도, 경쟁력 있는 실용기술보급, 환경개선과 어장관리 지도 등이 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은 1988년 시작하여 1994년부터 확대하였는데, 어촌개발의 당위성은 어촌 그 자체의 존재가치와 역할에 있다. 사업추진 방식은 수개의 어촌계를 수산업의 형태, 어장이용의 특성, 교통 지리 및 자연환경 등 경제지리학적 특성에 쫓아 이를 하나의 개발권역으로 묶은 계획적 개발지역으로 확정하고, 여기에 제 기능의 종합과 투자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집중투자방식의 중심지 어촌개념을 도입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2. 수산사회교육의 단계적 발전 방향

수산사회교육은 평생교육 이념을 구현하는 차원에서 학문적, 실천적 위치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먼저 학문적 정립을 위해서는 영역과 체계 구축이 되기 위해서는 대학에 수산사회교육 과정을 개설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학문의 기초는 교육학과 사회과학을 중심으로 수산사회교육 분야 전공과목을 도출하여야 하며, 실천적 정립을 위해서는 복합적 신진기술의 수준 향상과 체계 정착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이 요구된다. 그 외 총괄 관리 전담부서의 신설 등이 필요할 것이다. 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수산사회교육을 평생교육 차원에서 발전적 단계는 <표 2>와 같다.

<표 2>와 같이 상위영역을 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 체제, 행·재정, 새어촌 등 5개로 구분하고, 각각 하위영역을 정리하여 발전적 수산사회교육의 실천적 내용을 정리하였다.

<표 2> 수산사회교육의 발전적 단계

구 분		기본적 수산사회교육	발전적 수산사회교육
상위영역	하위영역		
연구 및 교육	기초연구	수산사회교육 인지도	수산사회교육 인지도 확대
	교수방법	개별적 기술교육 중심	종합적 기술교육 중심
	전문인력 양성	생산 치중 대학 양성체제	부가가치창출 치중 대학 양성체제 구축 및 확대
	어민후계자 양성	양성 인원, 자격	인원 확대, 양성자격 엄격
프로그램	내용	단순 기술	전문 기술, 복합적 기술
	대상	어촌 청소년, 성인	어촌과 도시의 청소년, 성인, 여성, 귀어민
체제	연계 체제	제한적 행정부서	타 행정부서와 단체, 외국 정부와 단체 확대
	전담부서	업무 분산	전담부서 설치
	산·학·관 체제	산·학·관 협조체제	산·학·관 협조체제 확대
	정보관리	제한적 관리	정보센터 운영, 정보 제공시스템
행·재정	행정지원	법적 근거 및 관리분야 제한	법적 근거 및 관리분야 확대
	재정지원	제한적 재정 지원	재정 지원 관련부서 및 단체 확대, 민자유치 확대
새어촌	운동전개, 개발	개별투자, 개발 중점, 전문단지 육성, 운동전개 소극적 방법	종합투자, 임해도시 전문단지 확대, 운동전개 적극적 방법, 친수환경, 해양환경보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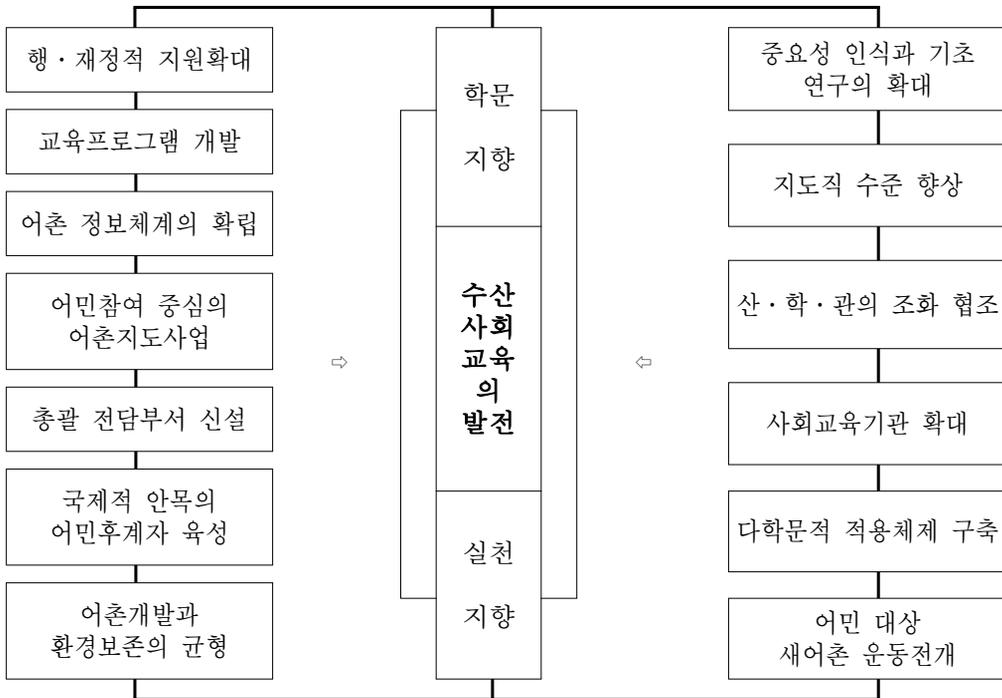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수산사회교육의 기초적 연구로서 관련 문헌 및 자료조사를 통해 사회교육의 이론적 기초를 정리하고, 분석한 자료를 통해 수산사회교육의 의미와 성격, 수산사회교육의 당위성과 중요성, 수산사회교육의 학문적·실천적 정립의 필요성, 대학의 수산사회교육 프로그램 개설 등과 연계하여 제시하였다.

수산사회교육의 학문적, 실천적 발전과 관련기관과 대학의 유기적인 협력 체제 구성, 수산사회교육의 학문적 접목과 함께 실천적 행동이 수산사회교육의 기본적 틀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수산사회교육이 앞으로 발전해 나갈 발전 방향을 도시화 하면 <그림 1>과 같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예측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1>과 같이 수산사회교육이 발전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발전 방안들이 실

천적·학문지향적으로 추구되면서 상호 연계되어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는 피이드백에 의한 평가가 수반되어 수산사회교육이 보다 발전할 수 있게 한다.

우리나라의 수산업 발전을 제고하고 새로운 어촌개발의 시스템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수산사회교육의 중요성 인식과 기초적 연구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수산사회교육의 당위성은 평생교육 체제, 즉 ‘평생교육-사회교육-수산사회교육’의 틀 속에서 찾아야 할 것이며, 그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는 수산교육과 사회교육의 의미를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식기반 사회이니 만큼 구조적인 면에서 하위계층으로 규정지어진 소외집단인 어민으로 하여금 수산사회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수산 연구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연계하여 연구 개발된 수산분야의 기술 현장에 전수될 수 있는 지도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그림 1> 수산사회교육의 종합적 발전 모형.

수산사회교육의 실천적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단순한 기술교육에서 벗어나 전문성이 요구되고 경쟁력이 있는 어촌사업을 발굴하고 이에 걸맞는 수산사회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어민들이 부가가치를 계속적으로 창출함으로써 어업의 소득의 증대가 가능한 수산물 유통지구를 설치하여 수산물 소비 수요를 늘리고, 수산 관련공단을 설치하여 수산식품 제조, 수산물 생산을 위한 선박 건조·수리, 어구제조·수리 등 복합적인 기술단지 조성이 됨으로써 관련 산업의 연계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이에 따라 인력증대와 함께 그 지역의 동일계 전문직업훈련원 및 수산·해운계 고등학교와 대학이 연계한 전문인력 교육이 가능할 것이다. 이와 같은 체제는 산학협동체제를 강화할 수 있으므로 실천적 수산사회교육의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어민참여 중심의 어촌지도사업이 전개되어야 한다. 어촌지도사업의 방향도 대다수의 어민들이 적극적,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지도사업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어민의 참여가 필요하며 이는 어민으로 하여금 어업을 보다 넓고 높은 시야에서 고찰하고 어업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다.

수산사회교육 지도직의 수준 향상이다. 현직 교육의 강화를 위해 관련 지도직에 근무하고 있는 지도요원에게 전공분야의 기술과 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관련 부문의 대학원 진학을 권장하여 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학위취득자에게는 직위 및 급여에 관한 합당한 혜택을 부여하며, 또한 해외연수를 통한 지식습득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것이다.

수산사회교육의 학문적 지향이 요구된다. 수산사회교육은 아직 학문적 영역 및 체계에 대해 연구되어진 바가 없지만 산업의 규모와 성격으로 보아 독자적인 학문으로서 영역 구축, 체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수산관련 기관들과 유기적인 연계는 대학에 학부 과정이 개설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수산업의 규모 면에서 대학의 학부 과정보다 관련 대학원에 수산

사회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학문체계와 영역구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수산사회교육의 학문적 체계의 정립을 위해서는 대상, 영역, 연구 및 개발에 대해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각종 국제적 학술교류가 장려되어야 할 것이다. 부단한 연구를 비롯하여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학문적 풍토의 조성이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수산사회교육은 다학문적 연구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복합적인 배경을 가지는 어촌, 어업, 어민에 대한 효율적인 연구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수산사회교육의 연구 및 접근 방법은 여러 학문영역이 협동적으로 참여하는 다학문적 연구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수산사회교육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어촌지도기관이나 유관기관의 입장에서 어촌여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어촌여성인력개발에 대한 충분한 교육의 실시와 동시에 부락개발활동, 어민단체의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산·학협동체제를 더욱 촉진시키고, 그 관계를 강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이 개발되어야 한다.

수산사회교육을 총괄할 전담부서가 신설되어야 한다. 각 지방해양청 및 어촌지도소,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 유관단체 등에 퍼져서 실시되는 평생교육을 총괄 지휘하는 전담부서 신설이 요구된다. 즉, 수산사회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적 체계 정착이 조속히 되어야 한다.

수산사회교육의 정보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어민들과 기관간의 커뮤니케이션 채널과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 매체를 사용한 장기간의 교육적 접근을 통하여 어민들로부터의 피이드백을 수용함으로써 혁신적인 어업 연구를 계속 수행하고 어민들의 보다 높은 수준의 요구를 개발·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체 어민을 대상으로 컴퓨터와 같은 첨단 교육매체의 활용과 이를 위한 적합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이 이루어

저, 어촌주민·임해도시 어민·귀어 어민과 기관 간의 정보체계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산·학·관의 조화와 협조가 필요하다. 수산사회교육을 지금까지의 GO, 즉 관 주도형 어촌지도사업의 단일 형태에서 발전적으로 탈피하여 민간주도형의 수산사회교육 형태도 함께 강화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수산사회교육은 GO와 NGO가 조화된 형태로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더 나아가 수산대학에 사회교육 관련 학과가 설립되고 수산단체가 협력하는, 산·학·관이 서로 연계되어 수산과학기술의 효율적인 개발과 국제경쟁력의 향상을 도모하는 등 수산사회교육의 발전에 동참해야 한다.

수산사회교육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일반사회교육기관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수산사회교육은 어촌과 관련된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교육기관의 관심과 실천 영역으로서도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해양수산부에서 실시중인 환경친화적 어업육성 프로그램의 교육대상이 어민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까지도 확대되고 환경보존 프로그램 개발과 실행은 환경부 및 다른 관련부처와의 유기적 협조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어촌개발은 환경보전을 기본 바탕으로 하여 전개되어야 한다. 개발이라는 미명아래 환경을 파괴시키는 경우가 허다한데, 무분별한 개발은 결국 생태계 파괴를 자초하여 인간의 식량 공급에 커다란 위해가 될 수도 있으므로 개발은 자연생태계나 환경을 최대한 보호·보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되도록 어민들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관 주도 국민 참여를 유도한 새마을 운동은 지역 사회개발을 위한 성공적인 사회교육의 모형인데, 이와 같은 새어촌 운동을 어민들을 상대로 전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수산사회교육의 행·재정적 지원 확대이다. 어촌지역의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민의 기술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현재 11개소인 수산관

리과 및 17개소인 수산기술관리소와 부족한 지도직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세계수산물 유통현황과 수용을 위한 어업교육체제를 검토해 보고 어업인후계자 등 젊은 어업종사자들이 해외 등에 연수기회를 넓혀 어업기술의 전문화와 국제적 감각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단체의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국제적 안목의 어업인후계자 육성이 필요하다. 어업인후계자사업에 비중을 높여 어촌청소년들의 경영능력과 국제적인 안목과 지도력을 배양시킬 수 있도록, 관·민간조직체를 연계하여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박노열, 사회교육개론, 형설출판사, pp.26~29, pp.265~271, 2001.
- 권이중, 사회교육개론, 교육과학사, pp.1~14, pp.94~675, 1997.
- 이종만, 농촌사회교육 : 그 성격과 지향성에 대하여, 한국농업교육학회지 27(1), pp.33~41, 1995.
- 김성주·정지용·최민호·권일남, 농촌사회교육학의 학문적 체계 정립에 관한 연구, 한국농업교육학회지 23(3), pp.1~18, 1991.
- 이종만, 농촌사회교육학 : 그 정립 가능성에 대하여, 한국농업교육학회지, pp.31~42, 1991.
- 이양주·김재기·이상래·강대구, 개방 농업에서의 농촌 및 농업교육 체제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농업교육학회지 25(4), pp.17~28, 1993.
- 정지용, 변환기의 농촌사회교육 : 학문적 발전과 그 방향, 한국농업교육 학회 '93 국제학술대회, pp.30~40, 1993.
- 한국수산기술연구원, 어업전문인력 수급전망과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 수산산학협동사업보고서, pp. 64~114, 1995.

- 김삼곤, 한국수산·해양 실업기술교육사, pp. 1~6, pp.139~153, 2002.
- 김영조, 어촌사회의 실태 및 어민들의 의식에 대한 조사, 수산경영론집, pp.89~118, 1998.
- 해양수산부, 1997년도 어촌지도사업보고서, pp.7~200, 1998.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연근해어선 안전조업 지도대책, pp.15~27, 2003.
- 해양수산공무원교육원, 실업교육 100년사 발간 사업 관련자료, pp.1~2, 1998.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교육훈련 100년사, pp.745~755, 1998.
- 최정윤외 4인, 권역별 어촌개발계획 수립과 그 추진에 관한 연구, pp.4~83, pp.259~263, pp.270~278, 1998.
- 해양수산진흥원, 2003 해양수산정보총람, pp. 25~697, 2003.
- 조선재, 수산사회교육의 발전을 위한 기초 연구,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집, 2003.
- Niels Röling, 네덜란드의 농촌사회교육 전략 : 현상항과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한국농업교육학회 '93 국제학술대회, pp.1~17, 1993.
- 鈴木敏正, 일본에 있어서 농촌사회교육의 전략, 한국농업교육학회 '93 국제학술대회, pp.18~29, 1993.